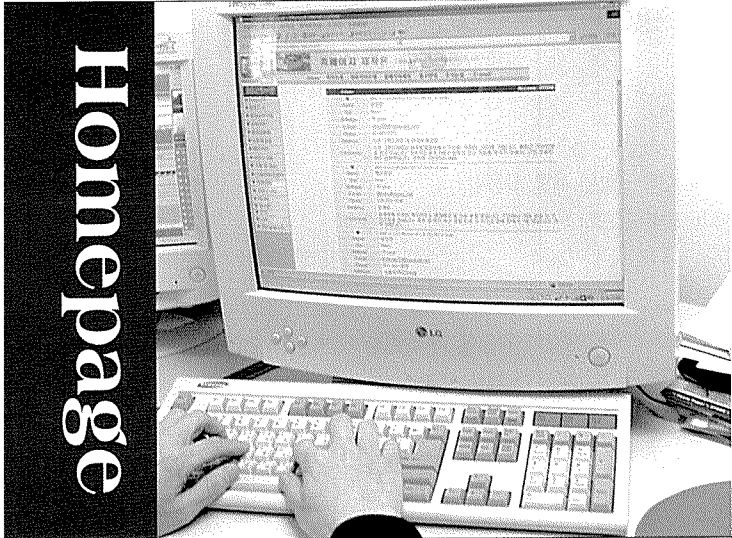


# 구인구직 웹사이트 ‘정보교류 역할 특특’ 관련 사이트 속속 오픈 ... 정보 신뢰도 확보 해결돼야



국내 베이커리 업계의 웹사이트를 통한 정보교류가

올해 들어 더욱 활발해지고 있다. 특히 그동안 특별한 정보교류의 장이 없었던 구인구직에 관한 내용들이 웹을 통해 활기를 띠고 있어 인력난에 봉착한 업계로서는 새로운 대안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조심스럽게 제기되고 있다.

〈취재 / 오형석 ohs@mbakery.co.kr〉

국내에서 구인구직과 관련된 사이트를 게시판 형태로 운영하는 법인은 3개 업체가 있다. 이 업체들이 운영하는 사이트의 특징은 고객들에게 서비스 형태로 정보가 제공되며 무료로 운영된다는 점이다. 자유게시판에 구인과 구직에 관련된 정보를 해당 개인이 남겨 놓으면 관심 있는 이용자가 필요에 의해 리플을 달거나 오프라인 상에서 연락을 취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 서비스 형태 게시판 ... 3개 사이트에서 무료로 운영

베이커리 업계의 인터넷 활용에 있어 가장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온 베이커리넷(bakery-net.co.kr)은 약 1년전부터 홈페이지 자유게시판에 구인구직과 관련된 정보 교류의 장을 개설해 놓고 있다. 이 업체의 4월 중순 자료에 의하면 사이트 방문자 수가 구인란 16만 2,581명, 구직란 8만 9,080명에 달해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수치는 구인란과 구직란에 중복된 글을 남기는 경우를 고려하더라도 다른 사이트에 비해 상당히 활성화 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평이다. 이 업체 이재홍 사장은 “사이트 초기 개설 때보다 많은 방문자들이 생겨나 베이커리 업계에도 인터넷이 상당히 보급되고 있다는 것을 느낀다”며, “최근에는 휴무 요건이나 거주 지역, 출퇴근 형태 등 아주

구체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상당히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취업형태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자사 홈페이지에 구인구직란을 따로 마련해 사이트를 운용하고 있는 웰가(www.wellga.com)는 홈페이지 메인 화면에 관련 사이트를 링크해 자사 방문객들을 위한 정보공간을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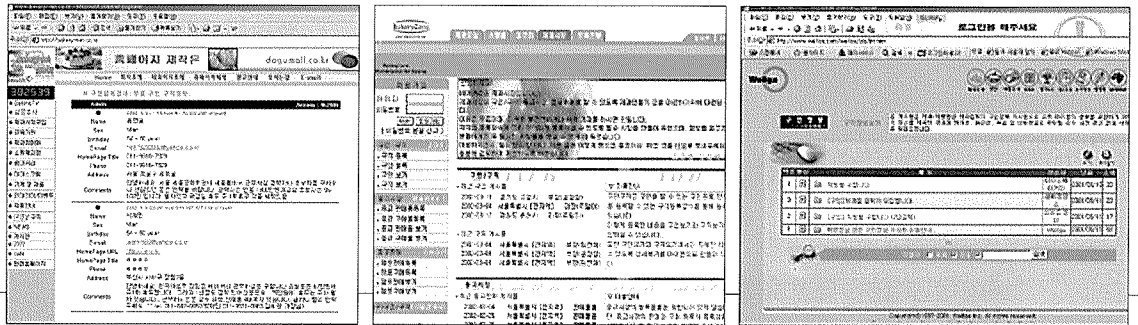
이 홈페이지에는 방문객들이 급속도로 늘고 있지만 꾸준히 관련된 글이 올라오고 있어 관심 있는 방문객들에게 상당히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원부재료를 취급하고 있는 회사의 특성상 홈페이지 방문객 수가 많아 정보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다는 것이 이 사이트의 장점으로 평가되는 부분이다.

올해 3월 홈페이지를 리뉴얼하면서 구인구직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는 우정공업(www.bakeryzone.net)은 사이트를 개설한지 얼마 지나지 않아 홍보의 부족을 느끼면서도 향후 확실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으로써 업계에 실질적인 정보 공유의 장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이트를 개설한지 한달이 채 지나지 않아 방문객 수가 많지 않은 것을 고려하더라도 이 업체는 그 동안 견지해 온 다양한 정보를 업계에 제공한다는 홈페이지 성격을 유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인터넷 관리 직원을 다수 채용하고 있는 이 업체는 정보를 다양하게 제공할 뿐 아니라 홈페이지



Homepage



지 자체의 콘텐츠 질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 중이다.

**구인구직 전문 사이트 업체 … 유료화 통해 정보의 질 모색**

한편 무료로 운영되는 구인구직 사이트는 활발한 정보가 오가는 대신 검증되지 않은 정보들이 유통됨으로써 방문객들의 불만을 사고 있기도 하다. 한 사이트에서 구인을 경험한 한 방문객은 “게시판에 올라온 글을 무조건 신뢰하기에는 정보 자체가 검증되지 않은 부분이 있어 신뢰도가 떨어지는 경향이 있는 것도 사실”이라며, “무료로 운영되는 사이트인 만큼 사용자들 나름대로 검증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런 경향이 반영되면서 최근 구인구직 전문 사이트들이 개설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빵굽터 본사가 운영하고 있는 제과시장(www.bakerymarket.co.kr)과 베이킹티브이가 운영하고 있는 잡배이커리(www.jobbakery.co.kr)는 기존의 무료 게시판 형태의 소극적인 취업 정보를 벗어나 적극적인 취업 정보 공유를 표방하고 나서고 있다는 점에서 기존의 게시판 형태의 사이트보다 훨씬 진보된 웹사이트라고 평가되고 있다.

제과시장은 보다 정확하고 신뢰있는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해 9월 사이트를 개설했다. 하루 500건 정도 검색

되고 있는 이 사이트는 회원 가입을 한 사용자에 대해서만 자료 등록의 기회가 주어진다. 본격적인 구인구직 사이트를 표방하고 나선 이 업체는 사이트 개설 이후 6개월까지는 무료로 운영할 예정이며, 올 6월 이후는 유료화 서비스로 전환해 신속하고 책임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무료 회원이 4,000명에 달하는 이 사이트는 유료화를 통해 회원의 신상명세 등을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이용자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 할 계획이다. 이외에도 최근 개설된 ‘베이킹티브이’의 잡배이커리는 품격 있는 정보를 제공한다는 취지로 직급별 구인구직 콘텐츠 외에도 제과제빵 취업 상담 코너를 운영하고 있다.

웹사이트 상에서 구인구직과 관련된 정보가 오가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업계 관계자들은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업계의 인력난이 심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타개할 현실적인 대안이 마련됐다는 측면에서 순기능적 역할을 할 것이라는 평가다.

한편으로는 책임 있는 정보가 유통되지 않아 채용 과정에서 당사자 간에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인터넷 사용자가 점차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신뢰도 높은 정보가 공유될 수 있는 방안이 좀 더 현실화될 수 있도록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구된다. [E]